가다가 중지곳 한 믿음

(예레미야 7:1~34)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5.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가다가 중지 곳 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가다가 중지 곳 한 믿음'
조선 후기 김천택의 시조 마지막 구절을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잘가노라 닫지말며 못가노라 쉬지말라
브대 긋지말고 촌음(寸陰)을 앗겻슬아
가다가 중지(中止)곳하면 안이간만 못한이라

우리 생활에서 가다가 중지곳 해서 아니간만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이어트 뒤에 따라오는 요요현상도 있고 운동을 중지해서 나타나는 디트레이닝(Detraining) 현상 등이 있을 것입니다. 디트레이닝 현상은 트레이닝으로 발생되던 효과가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안 좋은 증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혈압과 혈당의 수치가 증가하고 뇌 활동은 저하 됩니다. 또 신진대사가 느려지거나 체중이 늘어나고 최대 산소섭취량이 감소되는 증상들이 포함됩니다.

한편 믿음에도 가다 중지 곳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 살펴봅니다.
믿음은 한 순간의 결단이 아닌 특정단계에 도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과정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5~27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과정에 대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8~30절을 보면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도달해야 될 최종 단계가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최종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작 망대를 세울 때에도 재료와 능력과 시간이 충분한지를 살피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짓다가 도중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망대의 역할도 못할뿐더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20~21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던 김천택 시조의 마지막 부분인 '가다가 중지곳하면 안이간만 못한이라'는 부분과 의미가 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았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믿음의 필수적인 내용이고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가다가 중지 곳 한 믿음이 되고 아니간만 못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최종단계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망대를 짓는 사람이 끝까지 지을 수 있을지를 잘 따져보지 않는다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신 믿음의 최종단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 안에도 포함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진 뒤에는 전과 다름없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가고 예배당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가는 모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는 선민 남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 예언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중지되어서 아니 감만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멈추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본래 믿음이 향해야 하는 최종단계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밝히기 위해 삶의 현장의 모습들을 비유로 삼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고,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등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서 선민의 믿음이 가다가 중지 곳 되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삶에서 계명을 어기게 된 것을 표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십계명 중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곧 제1계명인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음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긴 결과로 제2계명에서부터 나머지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이 행위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최종 단계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본문을 통해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가 열두 편의 설교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1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참 이해하기 난감한 문장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의 한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전국에서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전 뜰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성전입구에 서서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한 결과로 예레미야는 26장 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성전의 존재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인 것입니다.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본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원사건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원사건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원사건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이러한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성전예배에 참석하도록 권면하였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권면은 표면적으로는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오히려 성전의 의미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우상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차마 하나님께서 선민을 망하게 하시겠느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개인의 삶과 가정은 물론이고 나라가 안정된 토대 위에 설 수 있다고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강하게 주장하던 바가 성수주일이었습니다. 성수주일을 해야만 삶이 편안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꺼림칙했습니다. 예배의 본래 목적은 잊고 다만 이 꺼림칙함을 털어내려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가는 것을 교회에 간다고 하는데, 교회는 가거나 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로 마음을 둔 자들 전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마음을 십자가 너머에 둔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 자체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을 뿐이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수주일을 위해 교회에 가는 것은 단지 예배당에 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가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할 때에 교회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공간에 늘 머물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있게 된 사람들의 모임 전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당에 대해서 미신적 신앙을 종용해왔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오늘 하루도 내 삶과 가족이 편안할 수 있다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삶이 평온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단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 가다가 중지 곳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선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잘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중지 곳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이해하기 위해서 예배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언약으로 삼으시면서 이루어진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언약은 남자가 몸에 표징을 갖는 것입니다. 이 표징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과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적 현실로 체감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내가 마음을 준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위급하거나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이 도달해야 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삶의 문제가 나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현실로 느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우선적인 현실로 삼고, 이 상태에서 성전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바로 시작하지 아니함만도 못한 상태입니다.
삶의 현장이 아무리 위태롭고 다급하게 여겨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현실로 여기는 것이 선민이 도달해야 하는 믿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나 정작 선민들은 세상을 현실로 받아들인 마음 상태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제사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제사에서 특히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양을 죽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할지라도, 상번제를 기억하며 하나님 보다 세상 문제를 현실로 느끼는 마음을 어린양과 함께 죽은 것으로 고백하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마지막 단계를 성취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전을 통해 마음에 담은 세상 것들이 잘 지켜지고 부흥하기를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러한 미신적 제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여야 함을 잊고 삶의 조건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

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위태로우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업을 첫 번째 현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이것을 옳다고 더욱 부추깁니다. 사업이 위태로운 것을 우선적 현실로 느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성전의 존재의미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짓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언약을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현실은 아닙니다. 돈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현실은 아닙니다. 내가 죽을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윗은 이 할례의 언약을 잘 수행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과 대치할 때를 떠올려봅니다. 골리앗이 겁을 주자 사울 왕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제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서 골리앗이 첫 번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동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인 다윗은 믿음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었습니다. 전쟁터라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할례 받은 선민임을 기억하였고,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현실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현실로 삼지 못하고 골리앗을 현실로 삼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첫 번째 현실로 여기면 사울왕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상번제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현실로 느끼는 마음을 상번제의 어린양과 함께 죽었다고 여기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생활화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곰과 사자를 죽이고 양을 되찾는 용맹함으로 표현되었습니

다. 이러한 일은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늘 상번제를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린 목동에게 눈앞의 곰과 사자는 위협적인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상번제를 통해 죽이고 하나님을 현실로 삼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의 어린양을 기억함을 통해서 세상을 현실로 느끼는 마음을 죽인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항상 마음에서 하나님을 현실로 여기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군이 골리앗을 마음에 담고 현실로 여기고 있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현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인 상태에서 골리앗을 보자 문제로 여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멈춘 채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마음은 주저 없이 세상을 현실로 여기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니간만 못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닥치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 현실로 여기는 단계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습니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가 곧 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 사함을 받은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이 나의 마음에 가장 현실로 다가오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현실로 느끼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현실로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만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바꾸어 가는 것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삼지 않는다면 십계명이나 율법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

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고, 또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얼핏 사소한 잘못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삼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대표적 행위를 일컬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믿음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율법과 계명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마치 KTX가 레일 위를 부드럽게 달리는 것과 같이 쉽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중지 곳 하면 아니 간만 못 한 믿음의 상태를 벗어나서 믿음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사실보다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알고계신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